

日本 圖書館界 視察 雜錄

任 鍾 淳

(延世大學校中央圖書館司書長)

一. 東京까지

쿠릉 쿠릉 씩 씩 배는 흔들리고 밖에는 깜깜 칠흑, 열 자리에서는 배멀리 때문에 많이 伸吟들을 하고 있다. 나는 白麟, 千惠鳳과 함께 韓美財團의 後援으로 日本圖書館의 視察 兼 古文書研究次 9月13日 午後5時 釜山 第2埠頭에서 乘船한後 日本으로 向하고 있는 中이다.

颶風 來襲으로 因한 風浪關係로 우리의 旅客船 아리랑號은 괴로운듯 몸을 흔들면서 어려운 突進을 하고 있는 中이다. 船內에서 자는중 흔들리는중 하면서 이른 날 새벽 小倉 外港에 到着했다.

時計 指針은 午前4時를 가리키고 있다. 갑갑한길에 甲板에 올라갔다. 하늘은 잔뜩 짜증이 나 있으며 서러운지 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甲板에서 對岸을 바라보니 八幡市인듯한 곳에 불빛이 輝煌하게 비치고 있다. 海上에서 檢校手續을 끝마친다음 午前10時 小倉를 出發하여 一路 아리랑號은 瀨戶內海로 進入하기 始作했다. 瀨戶內海는 湖水인양 아리랑號는 春香이 걸음 걸이와 같이 조용히 미끌어져 가고 있다. 가랑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으며, 船內의 텔레비에서는 지나간 颶風의 被害와 앞으로 닥아올 颶風에 對해 日本國內가 騷動하는 報道가 한창이다. 오늘 9月14日은 陰曆으로 17일쯤 되어, 밝은 달밤아래 瀨戶內海를 지나며 “月光의 小夜曲”의 感想이라도 맛볼줄 알았더니 氣象關係로 無爲하게 되었다. 그러나 兩岸의 都市에서 가끔 海面에 投影되는 네온의 불빛으로 조그마한 樂을 삼고 지낼수 밖에 없었다.

9月15日 午後6時쯤 神戶港內에 들어갔다. 港內에 들어가는 途中 日本海上自衛隊의 朝禮 喇叭소리와 潛水艦을 보니 좀 氣分이 이상해졌다. 아침 10時쯤 神戶를 通해 日本에 첫발을 디디어 놓을 때 비는 멎고 날은 개이기 始作하였다.

上陸하여 埠頭를 나가려할때 日本稅關의 너무 지나친 必要以上の 所持品 檢査에는 完全히 첫 氣分을 망가쳤다. 神戶에서 一路 大阪에 가서 하루를 지낸 다음 9月16日 午後1時 新大阪驛에서 新幹線으로 東京으로 向하였다. 이 新幹線은 올림피아 契機로 新設된 것이

라한다.

日本에는 汽車가 없다. 即 石炭이나 디젤을 使用하는 汽車란 것이 없고 全部 電氣로 움직이는 電鐵이다. 이 特急 新幹線은 東京 大阪間을 4時間에 運行하며 30分마다 한列車式 運行하는데 前日 車票를 사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東京으로 가는 途中 列車은 京都와 名古屋에서만 停車하고 그외의 驛은 全部 通過다. 가는 途中 熱海(아다미)와 靜岡縣의 茶園은 참으로 景致가 좋와 印象的이었다.

二. 東京에서

9月17日 된장국으로 아침을 먹은後 省線으로 上野公園內에 位置하는 日本圖書館協會를 찾았다. 地理를 잘 몰라서 上野驛에서 自動車를 탔더니 얼마 아니가서 協會에 닿았다. 料金は 百圓也다.

이곳은 自動車 基本料금이 百圓에, 5百米마다 20圓式이라서 원만한데 갈려면 적어도 3乃至 4百圓을 支拂해야 한다. 自動車값이 비싸다. 日本圖書館協會는 上野公園圖書館 後側에 있으며 木造二層 建物이며 빌려있는것 같다. 日本圖書館協會에서 事務局長 有山氏는 不在여서 菅原氏와 만나 人事를 交換하였다.

暫時後 駐日代表部에 入國을 登錄하러 가려고 이곳을 떠났다. 道程은 멀고 地理를 잘 몰라 省線등을 利用하여 간신히 登錄을 마쳤다. 날씨는 어찌나 더우고 濕氣가 많은지 물에 빠진 생쥐 모양 따므로 內衣가 지 흠뻑 젖었다. 午後4時쯤 다시 日本圖書館協會로 도라갔다. 途中 東京書籍販賣會社에 들러서 必要한 圖書選擇을했다. 日本의 出版狀況은 約3千種의 新刊이 出版되며 “베스트셀러”는 初版 20萬部, 學術書籍은 5千部式 出版된다고 한다. 저녁에 旅館을 飯田橋驛附近으로 定했다. 잠자리를 떠서 그런지 잠이 잘 오지 않아 이리 업치력 저리 업치력 하는데 颶風은 닥쳐 비바람 소리가 더욱 요란한中 突然 새벽 2時쯤 二層방이 흔들 흔들, 따라 몸도 虛空에 떠있는양 혼당 혼당, 이게 뭐가 했더니 地震이 發動한 모양이다. 두번쯤 震動하니 조용하여졌다. 다음날 아침 旅館의 從業員에 물어봤더니 하두 그러한 것에는 習性이 됐는지 모르고 安眠했다한다. 우리들은 처음이라 魂飛百散할 程度였는

데 그들은 鈍感한 面도 있는 習性을 가지고도 있다.

9月18日은 土曜日, 國際基督教大學圖書館을 訪問하기 爲하여 아침 7時半에 飯田橋驛에서 省線(緩行)을 탄다음 四ツ谷에서 急行으로 바꾸어 타고 30分 달려서 三鷹驛에 到着했다. 急行省線의 速度는 時速 70哩이다. 이三鷹市는 東京都의 한 衛星都市로 田園都市의 氣分이 드는 곳이다. 여기서 다시 버스로 30分을 달려 國際基督教大學圖書館에 到着했다.

<國際基督教大學圖書館>

國際基督教大學은 넓은 地域에 學校建物이 쓰문 쓰문 서 있고 아주 조용한 雰圍氣속에 大學의 殿堂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圖書館은 그중에서도 本部에 가까운 한쪽 옆에 雅淡한 三層 建物로 되었다. 이 圖書館은 1960年8월에 竣工된 것이며 美國 Kresge財團 及 John D.Rockefeller 3世 個人的 寄贈과 其他多數人的 寄附에 依해서 完工하였다 한다. 美國에서 圖書館學을 研究하고 도라온 高橋女史 館長以下館員一同이 熱心히 執務하고 있다. 이 圖書館의 特色은 全館 開館式을 採擇하고 있기 때문에 建物의 大部分이 書庫로 占하고 있으며 書庫속에 閱覽臺등을 備置하였다. 書庫의 藏書 能力은 15萬冊 程度라 한다.

ICU 를 떠나 三鷹驛前에서 朝飯을 드렸다. 아침을 먹을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겨우 午前10時 10분에 먹는 셈이다. 그것도 샌드위치와 커피로 주린 胃腸을 若干 채운 것이다. 커피를 注文하였더니 무엇이냐고 다시 되 물기에 日本發音으로 “고—히”를 달래서 그것도 마실수 있었다.

三鷹驛에서 “오기구보”까지 省線을 탄다음 거기서 地下鐵로 가려타고 神田 附近인 淡路町까지 왔다. 地下鐵 構內는 어찌나 더운지 살을 찌는것 같다. 飢食을 든다음 셋이서 神田通 兩側에 즐비하게 開店하고 있는 古書店 巡訪 行脚을 始作했다. 各 書店을 둘러 그중 必要한 書籍을 몇卷 購入하니 다리는 나무토막 같이 움직이기 어려울 程度였다.

午後6時 東南貿易의 金昌世先生 案内로 銀座 求景을 나섰다. 風聞으로만 들은 銀座지만 人波와 車道를 四行으로 달리는 自動車 洪水로 道路는 充溢狀態이어서 運身하기 어려울 程度다. 당거미가 지는 銀座에서 所聞에 1坪 5千萬圓한다는 조고만 百貨店에 들어가 求景했다. 雨傘등을 보니 英國流行이라고 雨傘 손잡이가 모두 길쭉하다. 流行歌에 있는 銀座의 버들은 거의 볼수가 없으며 全體의으로 東京에는 街路樹가 적은 것이 異狀하다. 銀座 中心 9層에 있는 中國料理店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1人當 900圓, 飲食物은 Self service 로 얼마든지 먹

고 싶은대로 먹는 곳이다. 지고 가지는 못하나 먹고는 가는 곳이다. 但 酒類는 別途이다. 日本에서와 돈은 돈대로 썼지만 口味에 안맞고 배불리 못 먹어 주린 창자를 채워 불라고 하였는데 두점시분을 먹었더니 더먹을수 없어 도라오는 수 밖에 없었다.

日本은 自動車가 廉價인데다가 (日本產品에 局限)月賦등이 있어 大概가 自家用車를 運轉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또는 料금이 비싸서인지 比較的 營業車 타기가 쉽다. 이런 關係로 곳곳에 自動車運轉敎習所가 盛行되고 있다. 所聞에는 女子가 結婚할려면 自動車 運轉을 할줄 알아야 한다는 程度이다. 그러나 이 많은 自動車가 交通信號燈에 依해 秩序 整然히 運行되고 있으며 그 反面 交通巡警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大部分의 橫斷道路에서 사람이 優先이어서 自動車가 오드래도 한손만 쳐들고 지나가면 모든 自動車가 停止하기 마련이다. 但 交通信號燈이 없는 곳에서만 이다.

9月19日은 月曜日 金先生の 案内로 白鷺, 千恵風, 崔昌均氏와 나는 東京市內 求景을 나섰다. 午前은 省線을 타고 日本橋 附近을 돌아 보았으며 午後는 淺草에 갔다. 淺草觀音寺와 淺草劇場街는 日曜日을 擇하여 地方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그러나 二外의 東京 街里는 어찌까지의 複雜하였든 것과는 判異하게 조용하다. 그 많은 自動車나 人波도 어디로갔는지 조용하다. 日曜日이 되서 公休日인 것도 原因이겠지만 대개 自家用車를 利用해서 郊外로 散策을 나간것이 그 큰 理由이라 한다.

저녁에는 日比野公園에서 잠시 영명이를 붙이었다. 저녁 노을을 받으며 五色電燈 裝置下에 뿜어 올리는 噴水를 바라보니 可觀이드라. 넓은 地域에 設備된 벤치를 거의 메우다시피 青春男女들이 雙雙히 속삭이고 있는 風景, 可觀하였다. 日比野公園을 나와 帝國호텔 옆에 있는 某劇場에서 國際映畫賞을 授與했다는 “羅生門”을 一金 380圓씩 내고 鑑賞했다. 저녁 食事は 오랫동안 韓食을 먹었다. 곰탕을 注文하였더니 180圓인데 맛이없다. 거기에 김치도 없기에 오이김치를 시켰더니 한당기에 100원, 그것도 달콤하여 돈만 쓰고 먹기 힘든 곳이다.

9月20日은 日本圖書館協會 職員의 案内로 國立國會圖書館을 訪問하였다. 가는 途中 東條英機를 記念하는 東條英機記念館을 지났다. 그리고 午後에는 東京大學 綜合圖書館과 史料編纂所 그리고 東洋文庫를 들렀다.

<國立國會圖書館>

國立國會圖書館의 古野建雄氏(前 鐵道局圖書館勤務)의 案内로 짧은 時間이었지만 見學 觀察하였다. 國立

國會圖書館은 國會의 圖書館이며 第1의 特色은 國會議員의 國政審査에 對한 圖書館奉仕를 하고 있다. 第2의 特色은 國會 以外의 行政, 司法, 各部門의 諸機關에 對한 圖書館奉仕를 하고 있다. 이들 司法과 行政의 各部門 圖書館은 組織上 國立國會圖書館의 支部圖書館으로 되어 있어 이들 사이에 資料收集의 分擔, 文獻의 貸借 及 調査活動의 協力들을 하고 있다 한다. 따라서 組織은 館長(大臣級), 副館長(次官級), 1局, 6部に 1分館, 1支部圖書館, 2支部文庫, 30個의 行政, 司法 各部門支部圖書館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圖書館 行政上으로는 獨立되어 있다 한다. 第3의 特色으로는 滿20歲 以上의 一般人에게도 圖書館을 利用케 하고 있다 한다. 午前9시부터 午後8시까지이며 (土曜日은 午後5시까지) 每月末日, 日曜日, 國慶日, 年末年始(12月28日~1月4日)에는 休館한다고 한다. 이곳 國會圖書館에서는 Microfilm 및 電子複寫등의 手段에 依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資料를 一般人的 要請에 따라 有料로 複寫해 주고 있다. 지난 1年동안의 實績은 陰書 293,560卷 陽書 39,220卷, 擴大 23,176帳, Electrostatic 印刷 233,525帳이라 한다.

國立國會圖書館의 建物は 現在 8,866坪이나 計劃에 依하면 15,000坪으로 擴張한다 하며, 事務棟은 地下1層 地上6層이며 書庫는 現在 11層으로 270萬冊 收容可能이라 한다. 이것도 計劃案에는 17層으로 擴張하여 450萬冊을 藏書할 것이라 한다. 出入口는 圖書館職員은 1層에서, 一般閱覽人은 2層에서, 訪問客은 3層으로 直接 出入할 수 있게 建物周圍의 高低를 利用해 使用하고 있다.

一年間 豫算은 10億6千4百4萬餘圓, 그中 圖書購入費는 1億4千4百餘萬圓이라 한다. 職員數는 808名이며 여기서 刊行되는 것은 年刊 7, 季刊 1, 月刊 7, 半月刊 1, 隔月刊 1, 週間 2, 旬刊 1, 不定期 2等 22種이라 한다. 國立國會圖書館에 所藏資料는 圖書 2,142,830冊, 地圖 59,050枚 Record 57,820枚, Microfilm 24,049卷 定期刊行物 30,873種이라 한다. 그리고 座席數는 850席이다. 設備로는 炭酸가스消化設備, 圖書請求票送達用 氣送管, 圖書運搬用垂直송메아, 昇降機 등 機械設備가 되어 있다.

〈東京大學綜合圖書館〉

本郷에 位置한 綜合圖書館에 갔다. 이 圖書館은 1892年에 建造된 것이 1923年 大震災로 燒却된後 1928年 Rockefeller 財團의 援助로 再建된 것이 現在의 建物이라 한다. 建坪은 1,174坪에 1,168席, 藏書는 約60萬冊(以外 雜誌 350種, 新聞 100種)이며 職員은 131名 이라 한다.

이 圖書館은 閉架制로 부터 開架制로 運營方針을 變更시키고 있으며 約60萬藏書中 約6萬4千餘冊을 各層에 主題別 開架制로 採擇하고 있다. 이 圖書館의 分類는 N.D.C.를 使用치 않고 A에서 Y까지 展開式으로 된 獨自의 和漢書分類表를 使用하고 있다. (昭和 39年 4월에 改訂版이 나왔음) 이곳 自由閱覽室에는 安樂椅子도 備置되어 있어서 좀 休憩하면서 喫煙도 하게 되어 있다. 但 絕對無言嚴守이다.

東京大學圖書館職員과 目錄에 對해 若干 議論한 다음 그 옆 建物에 있는 <史料編纂所>에 들렀다. 여기에는 古文書等이 많다하여 閱覽할 希望을 가지고 갔으나 그곳 當局者의 말이 現在 未整理여서 보여줄 수가 없다 한다. 보여 주기 싫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할수없이 뒤로 돌아섰다.

〈東洋文庫〉

저녁 4時쯤 急한 걸음으로 東洋文庫로 向하였다. 어딘지 잘 몰라 自動車 運轉士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한다.

원래 東京은 넓어 그곳에 居住하는 日人들도 한국에만 長時日 居住하면 다른곳은 잘 몰라진다 한다. 東京 都案内圖를 指標로 하여 겨우 東洋文庫를 찾았다. 東洋文庫의 職員의 親切한 案内로 5層으로 된 書庫를 全部 돌아 보았다. 元來 이 東洋文庫는 1917年 岸崎久彌氏가 中華民國總統府顧問 모리슨氏의 藏書를 購入하여 設立된 東洋關係의 專門圖書館으로 처음에는 모리슨文庫라 일컬었다 한다. 그後 1924年 現在의 建物로 옮기면서 東洋文庫라 改稱하였다 한다. 現在 所藏되어 있는 것은 모리슨氏가 蒐集한 中國에 關한것만이 아니라 全 東洋에 亘한 資料가 蒐集되어 있다. 即 모리슨文庫 約 24,000餘冊을 中心으로 하는 約30萬冊, 또 3,000部에 達하는 中國의 地方志나 8千種에 達하는 族譜와, 韓國本, 滿洲本, 蒙古本, 安南本, 西藏本, 梵本, 暹羅本 등 約50萬이 所藏되어 있다 한다. Microfilm 으로서는 大英博物館所藏 스타인 卿集收敦煌文獻을 爲始하여 各種의 것이 있다 한다. 이 東洋文庫는 文庫이면서도 東洋學에 關한 研究所도 兼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 藏書의 分類로서 漢籍은 I. 經部, II. 史部, III. 子部, IV. 集部 V. 叢書, VI. 別置(冊子, 卷子) VII. 韓國本, VIII. 滿洲本, IX. 蒙古本, X. 安南本, XI. 別置(貴重本)으로 區分 되어 있다.

9月21日은 神奈川縣에 있는 金澤文庫를 見學하러 省線을 타고 橫濱에 갔다. 東京과 橫濱사이는 住宅, 工場 등 建物이 連結되어 있어 都와 市의 限界를 알수 없다. 午後에는 明治大學圖書館을 訪問했다.

〈金澤文庫〉

이 金澤文庫는 1275年 쯤에 設立되었다고 한다. 所藏資

料는 稱名寺에 依해 傳해 내려온 古書 約 12,000冊, 古文書 5千餘通과 研究參考圖書 22,000冊, 郷土資料 4,000餘冊, 그리고 佛像, 佛具, 繪畫, 陶磁器等 200餘點이 있다한다. 그러나 現在는 神奈川縣立의 博物館으로 書籍등은 다른곳에 옮겨 있어 閱覽하지 못하고 古文書 若干과 博物等을 觀察하고 橫濱를 뒤로했다.

〈明治大學中央圖書館〉

午後3時半쯤 明治大學中央圖書館을 찾았다. 明治大學은 中央大學, 日本大學등과 隣接해 있으며 街里에 펼쳐져 있어 韓國과 같은 캠퍼스 氣分이 나지 않았다. 한 大學의 建物과 建物사이에 一般人이 經營하는 食堂, 旅館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明治大學의 島田正郎博士의 案内로 明治大學中央圖書館을 들어갔다. 明治大學의 圖書館은 中央本館, 和泉分館, 生田分室, 大學院分室等으로 分離되어 있다한다. 明治大學의 全體 圖書館의 藏書는 618,000餘冊이며 職員數는 98人이라한다. 圖書館을 學生들에게 周知시키는 手段으로 新入學生에게는 Slide에 依한 圖書館案内와 함께 利用案内冊子도 配付하고 있다한다.

9月22日은 日本圖書館協會에 갔다. 日本圖書館協會는 上野公園內에 位置하며, 上野公園에는 動物園, 植物園 博物館, 美術館, 音樂堂등이 있다. 協會 職員과 함께 慶應大學에 갔다. 車값 440圓. 途中 東京塔頂을 지나 갔다. 높은 탑이어서 한번 올라가 東京을 눈아래로 보고 싶은 마음 간절했으나 時間關係로 機會를 잃었다. 午後は 尊經閣에 들렀다가 日比野公立圖書館에 가서 崔昌均氏를 만난후 함께 協會事務局長 招待 파티에 參席하였다.

〈慶應大學圖書館學科〉

慶大 圖書館學科의 專任教授는 8人이며, 이 學科 專任事務職員3人, 그리고 學科專用圖書室이 職員2人으로 運營되고 있다. 이 圖書館學科는 우리나라와 同一하게 學部에 圖書館學科가 있다. 그러나 運營面으로서는 教室이 3個, 圖書室, 事務室, 教授室등이 한군데 集合되어 있다. 圖書館學科 專用圖書室에는 圖書館學關係 資料를 配架해 두고 隨時로 閱覽에 提供하고 있다. 慶大 圖書館에는 들르지 못하고, 日本 及 東洋의 古典에 關한 研究와 藏書를 保管하고 있는 斯道文庫를 見學하였다. 晝食을 藤川正信 助教授와 함께 하면서 圖書館學科 運營에 對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尊經閣〉

漢籍과 古文書를 많이 所藏하고 있다는 池田家의 尊經閣을 찾아갔다. 이곳 所藏目録에서 拙業午百(高麗本) 등을 찾아 내어 좀 閱覽할 수 있느냐 하였더니 詰잔케

拒絕을 當하였다.

그곳 學者들도 몇일전에 閱覽申請을 해야 볼 수 있다한다. 그리고 이 所藏目録은 求할 수 없으며 市中에서 幾萬圓을 呼價한다고 한다.

9月23日은 秋分日이라 이곳 日本은 公休日이다. 그리하여 東京에서 圖書館 歷訪은 끝내기로하고 來日 大阪行 車票를 샀다. 그리고 神田의 古書店을 또다시 두루 살펴 必要한 書籍2卷을 購入했다. 午後7時쯤 日本國會圖書館의 古野氏와 獨協大學의 關野氏等 六人이 우리들 旅館으로 來訪하여 談話를 나누었다.

三. 大阪에서

9月24日 大阪到着

9月25日 京都地方의 圖書館과 京都를 觀光하러 午前10時半에 大阪을 떠났다. 12時쯤 京都에 到着하여 晝食을 마친 後 京都大學圖書館을 찾아갔다. 京都의 街里는 깨끗하며, 日本의 他都市에 비해 조용한 都市이다. 第二次大戰의 戰災를 입지 않았다한다. 그리고 觀光都市로서 日本 各地에서 每日 觀光客들이 끊임없이 찾아 오곤한다. 가는날이 장날이라 <京都大學圖書館>에 갔더니 마침 土曜日이라 半休日, 圖書館은 日直 職員만이 남아 있어 그와 잠간 이야기하다 뒤로 도라섰다. 東京에서는 거의 自轉車를 보지 못하였는데 京都에는 比較的 自轉車 利用者가 많다. 京都大學圖書館 入口에 學生들이 타고온 自轉車들이 많이 늘어 서있다.

京都에 있는 銀閣과 金閣을 求景했다. 金閣은 이름과 같이 建物 壁面이 金泊으로 되어 있어 저녁 햇빛에 번쩍이고 있었다. 이곳을 떠나 嵐山에 갔다. 嵐山の 山기슭을 흐르는 河川은 넓으나 물이 맑고 깨끗하며, 그리고 後面의 山과 調和되어 景致가 優雅하다. 그리하여 그런지 이 河川 기슭에는 料亭들의 看板이 눈에 많이 띄어 눈 요기만 했다. 이 河川 기슭에서 가끔 日本時代劇 映畫 撮影을 한다고한다. 지나간 颱風의 被害는 어찌나 甚했든지 巨木들의 쓸어진 것이 여러개 눈에 띄었다. 嵐山에 올라가는데 入場卷을 샀다. 日本의 觀光 名所는 어더를 가나 入場卷을 사야한다. 嵐山에는 山중당에 圓승이 研究所가 있어 圓승이들을 놓아 거르고 있다. 그리하여 山길 옆에 圓승이에 對한 注意板이 여러 곳에 서있어 좀 기분이 이상하여졌다. 果然 山上에는 어린 圓승이부터 늙은 圓승이까지 圓승이가 많다. 販賣店에서 販賣하는 먹이를 주니깐 모두 모여 와서 주서 먹는다. 嵐山 頂上에서는 京都市內가 一目瞭然하게 보이며 眺望은 可觀이다. 그날은 京都에서 一泊하고 翌日인 9月26日은 西本願寺와 東本願寺를 參觀하고 大阪으로 돌아 왔다.

9月27日 아침에 大阪을 出發하여 一路 奈良로 向하였다. 奈良에 내려 東大寺를 찾아갔다. 奈良은 아주 조용한 곳이다. 東大寺앞에는 놓아 기르는 사슴들이 많다. 觀光客들이 주는 菓子를 바라보며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고있다. 東大寺의 法堂內에 제시는 佛像은 들던 바와 같이 相當한 巨像이다. 東大寺를 나와 古文書들을 많이 保管하고 있다는 <正倉院>에 갔으나 實際 現物을 보지 못하고 保管하였던 옛 建物만 구경하였다. 東大寺옆에 있는 <東大寺圖書館>은 現在 改築中이어서 書庫는 完工된 것 같으나 事務室과 閱覽室은 되어 있지 않았다. 事務室은 臨時 建物을 使用하고 있다. 이곳 狹川宗玄 館長의 厚意로 高麗大藏經을 볼 機會를 얻었다. 奈良을 떠나 天理市로 向하였다. 天理市는 天理敎의 本據地라 市內에 天理敎라 染色한 日本上衣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눈에 띈다. 天理大學은 아직도 擴張中이어서 工事가 한창이다.

<天理大學圖書館>

富永牧太 館長과 맞난후 館內를 돌아 보았다. 圖書館 建物은 前部建物이 3層, 後部建物이 6層으로 되어 있다. 1層은 機關室, 製本室, 寫眞室, 宿直室, 및 倉庫 등이 있어서, 外部에서는 階段으로 直接 2層으로 出入하게 되어 있다. 2層에는 閱覽室, 貸出係, 館長室, 事務室 등이 있고, 3層에는 研究室, 展示室 등이 있다. 後部 建物은 書庫로 充當되어 있으며 貴重圖書室 등이 있다.

現在(藏書數는 古文書까지 合쳐서 85萬, 中 2/3는 漢籍과 日本書籍이고 나머지 1/3은 아라비아 및 아프리카를 包含한 西洋書籍이라한다. 앞으로 書庫의 藏書能力은 110萬冊까지 收藏할 수 있다한다. 貴重圖書 書庫에는 宋版本등을 收藏하였으며 中 特異한 것은 古代의 地球儀 數十種을 蒐集해둔 것은 珍貴하다고 볼 수 있다. 이 圖書館은 一面 學校圖書館이며 研究圖書館 그리고 一般人에 閱覽을 許可하는 公共圖書館으로서의 奉仕를 하고 있으며 職員은 54名이라한다.

天理에서 自動車로 法隆寺까지 달렸다. 自動車값이 비싸서 1,050圓을 支拂했다. 法隆寺의 이곳 저곳을 參觀하고 奈良 經由 大阪으로 돌아 왔다.

9月28日 아침에 旅館을 出發하여 四天王寺를 參觀하였다. 두루 본 다음 塔部 最上層에서 大阪市를 굽어 보았다. 四天王寺를 떠나 大阪塔인지 大阪에서 第一 높은 塔을 昇降機를 타고 150餘m 올라가 展望臺에 내렸다. 展望臺가 흔들거리는 듯한 感を 느껴 처음에는 선듯 내릴 氣分이 나지 않았다.

그곳 展望臺에서 보니 大阪 全城이 眼下에 보이며 멀리 大阪城이 보였다. 이곳을 떠나 大阪城에 到着하였다. 大阪城 城廓에는 第2次大戰의 戰痕이 남아 있어

石築들이 불에 탄 자국들이 있었다. 大阪城內 잔디밭에는 老人男女가 잔디를 가꾸고 있다. 이는 機械로 하는 代身 老後人間의 失業對策의 한 方法으로 하는 것 같다. 大阪城의 外形은 古代風이었으나 그 內部는 現代施設로 昇降機, 現代式階段이 裝置되었으며 內部는 全部 豊臣秀吉과 그時代의 博物 展示場으로 使用되고 있다.

이곳을 떠나 <大阪大學圖書館>을 찾아갔다. 찾아간 곳이 大阪市北區常安에 있는 大阪大學中之島圖書館 即 醫科大學圖書館이었다. 이 大阪大學은 그 校舍가 文學部, 工學部, 醫學部로 三個所에 分離되어 있어 圖書館도 그에따라 세군데에 있다한다. 文學部에 圖書館長이 있으며 工學部나 醫學部는 分館制度로 되어 있다 한다. 그러나 豫算등에 있어서 各己 獨立的으로 履行한다고 한다.

9月29日 來日은 神戶港을 出發할 날이므로 모든 準備를 하느라 하루를 보냈다.

9月30日 午前10時쯤 大阪을 떠나 神戶에는 11時쯤 到着하였다. 晝食後 아리랑號가 淀泊해 있는 埠頭로 나갔다. 그런데 歸國할때 하마트면 一週日 延滯한번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釜山에서 떠나 갈때 往復票를 購入하였으므로 神戶에서 下船時 船員에게 歸國時의 手續을 물었더니 埠頭에 오면 된다고 했다. 그레 그것만 믿고 午後2時까지 埠頭에서 서성거리다가 그래도 疑心이 나서 다른 船員에게 물어 봤더니 汽船會社에 가서 手續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서둘렀다. 多幸히 주머니에는 豫期치 않은 일에 對備키 爲하여 日貨 幾百圓씩 남겨둔 것으로 부랴 부랴 自動車を 타고 大韓海運公社支店에 갔다. 그랬더니 關西汽船會社로 가야 한다고 하기에 그 會社로 달렸다. 會社에서는 늦게 와서 이번 배로는 어렵다고한다. 그리하여 事情도 하며 또 汽船會社의 失手도 抗議하여 겨우 出國手續書類를 作成하였다. 그 手續書類를 가지고 出國管理局에 가서 最後 出國手續을 마친후 埠頭에 도라오니 午後 4時, 다른 旅客들은 乘船하고 있다. 아슬 아슬하게 乘船한後 다시 72時間의 船中 生活를 끝내고 釜山에 도라왔다.

四. 後 記

元來가 짧은 期間에 視察해야할 關係로 여러 많은 圖書館을 둘러 보지 못한 것에 未練이 생긴다.

끝으로 이번 視察의 실마리를 풀어 주신 金桂淑 博士님과, 旅行을 許可해 주신 學校 當局, 그리고 뒤에서 盡力해 주신 李弘植 會長님 및 李鍾文 局長에게 感謝를 드리는바입니다.